

러시아 10월 수출현안 · 수입제도 모니터링

I

수입제도 변경사항 / 수출현안 및 동향

1. (기술규정) 특수식품 안전성에 관한 기술규정 (T P T C 027/2012)

- 출처: 유라시아 경제연합 경제위원회 이사회 결정 N168 (2018.10.16.)

- 특수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기술규정 요건을 위해 준수해야하는 국가표준의 목록을 정의함
 - 치료식품 및 질병 예방 식품과 같은 특수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세동맹의 기술규정(T P T C 027/2012)을 준수해야함
 - 위 관세동맹의 기술규정 요건을 적용하고 이행하는데 필요한 표본추출 규칙을 포함한 연구 및 측정 규칙 및 방법을 포함하는 표준목록을 설정함
 - 본 목록에 기재된 국가표준을 따라 식품을 생산하게 되면, 식품 안전성에 대한 기술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됨
- 총 247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, 각 항목마다 대상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명칭이 명시되어 있음
 - 목록은 총 247개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다음 세 가지 제품군으로 나눌 수 있음
 - ① 임신부와 수유부를 위한 전문 식품류
 - ② 유아식을 포함한 치료 및 질병예방 식품류
 - ③ 운동선수의 영양공급을 위한 전문 식품류
 - 각 제품군에는 총 28개에 달하는 대상 제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. 명칭을 통해 해당 제품을 파악할 수 있음
 - 예를 들면, 시리얼, 콩, 견과류를 기본으로 한 음료; 육류 살균 소시지; 우유 가공 혼합물, 비타민-무기질 복합체 등으로 대상 제품을 설명함
 - 제품군별 국가표준을 통해 [제품의 적합성 확인 시 실험용 표본 추출을 위한 일반규칙, 설탕 및 주스를 함유한 제품에서 자당을 측정하는 방법, 식물농축액에서 소금을 규정하고 그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, 비알콜성 제품의 미생물을 분석하는 방법] 등과 같은 사항을 규정함

- 또한 이 목록에 명시된 제품군 중 국가등록증이나 그와 관련된 증명서류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적합성 선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
- 본 결정은 공식 공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효력을 받함
 - 2018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됨

2. (기술규정) 식품 포장에 관한 기술 규정 변경

- 출처: 유라시아 경제연합 경제위원회 협의회 결정 N75 (2018.09.14.) - 사이트 공개 2018.10.30.
- 식품 포장에 관한 기술규정이 일부 수정되어 더욱 명확한 기준을 갖게 됨
 - 관세동맹위원회 결정에 의해 2011년 12월 9일 승인된 제881호에 의해 규정되었던 ‘식품 포장에 관한 기술규정’ (TR CU 022/2011)이 수정됨
 - 쉬운 가독성, 명료성에 관련한 개념과 표기 기준이 더욱 명확해짐
 - 글자 크기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었고, 식품 포장에 특정 정보를 명시하도록 규정하여 소비자 권리를 보장함
- 개정안에는 제품 명칭 표기와 유효기간 표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포함됨
 - 제품에 고유의 명칭이 있는 경우, 제품명을 겹면 포장에 표기해야 함
 - 예를 들어 제조일 및 만료일에 대한 정보는 소문자 기준 2mm이상인 글꼴을 사용해야 함
 - 또한, 권장사항 및 사용제한에 대한 정보와 전문식품제품에 제공되는 정보, 즉, 제조일, 유통기한, 유효기간과 같은 정보는 소문자 기준 0.8mm 이상의 글꼴을 사용하여야 함
 - 쉬운 가독성은 포장에 제품명과 제품에 대한 정보를 표기할 시에 사용되는 글자 및 글꼴의 명확성과 판독가능성 뿐만 아니라 글자색과 배경색간의 색상대비를 통해 그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
 - 따라서,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제외한 특수 광학 장치를 이용하지 않고도 읽을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함
 - 명료성의 경우, 글 또는 글과 그림의 형태로 제품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함
 - 또한, 실제 이용되었으나 식품 포장에 나타나지 않은 식품 구성 성분, 제조 시 사용되지 않았으나 포장에 표시된 식품 구성 성분, 제품의 성분을 통해 식품에 나타나지 않는 맛이나 향을 제품 포장에 표기한 경우에 대해서도 정확히 규정하고 있음

- 본 결정은 공식 공포일로부터 180일 이후에 시행됨
 - 2019년 4월 27일부터 효력을 발함

3. (수출현안) 러시아 농업부, 채소 수입 인증제도 도입 제안

- 출처: 러시아 농업부,
인터팍스 <https://www.interfax.ru/business/631619> (2018.10.03.),
한국농업신문(<http://www.newsfarm.co.kr>)
- 러시아 농업부는 자국 온실재배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채소 수입업자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을 제안함
 - 러시아 농업부는 수입채소의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러시아 현지 농산물 생산자들의 수입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채소 수입업자에 대해 인증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
 - 러시아 온실협회 회장 나탈리아 로고바(Natalia Rogova)는 온실재배 채소를 공급하는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함
 - 채소의 수입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판매가격이 하락하여 현지 생산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국내 온실 재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것을 촉구함
 - 러시아 농업부 언론 담당국은 러시아 온실 재배업 이니셔티브 (Greenhouse of Russia)를 빠른 시일 내에 고려할 것이라고 발표함
- 러시아는 자국 농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
 - 대러제재에 대한 대응으로서 서방국가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하면서 유럽산 농산물의 수입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음
 - 또한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농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적,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
 - 농업장비 구입을 포함하여 농공단지 조성 및 농공단지 현대화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음
 - 이에 따라 러시아내의 온실재배 채소 수확량도 증가하고 있음. 제 5세대 기술을 이용하여 건설된 새로운 온실 재배 시스템을 통해 해외의 농업기술과 비교하여 낙후되지 않은 수준임
 - 2014년 ~ 2017년 사이에 700 ha의 첨단 기술을 갖춘 현대식 온실 재배 시설이 건설되어 운영 중이며, 450 ha에 달하는 겨울용 온실재배 시설이 건설 중에 있음
 - 러시아는 해당 시설을 통해 2017년 99.22만 t의 온실재배 채소를 생산하였음
 - 이는 2016년 생산량 (81.36만 t) 보다 13.3%, 2013년 생산량 (61.5만 t) 보다 49.9% 증가한 수준임
 - 2018년에는 약 100만 t의 생산이 예측되고 있으며, 2024년까지 150만 t의 생산량을

목표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음

- 러시아 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, 올 1월부터 7월까지 125.7만 t의 채소가 수입되었으며, 이는 작년 동기 대비 1.4% 감소한 수치라고 함
- 러시아 농업의 발달에 맞는 진출 전략이 필요함
 - 러시아는 일본, 동남아시아 위주의 농산물 수출시장을 탈피하기 위한 출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장임
 - 그러나 그동안 러시아로 수출되는 농산물의 경우 동해와 블라디보스토크 구간을 운항하는 DBS 항로를 이용하여 신선도 하락 및 짧은 유통기한 등으로 수출에 많은 제약을 가져왔음
 - 한국 중앙·지방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소형냉동컨테이너 지원 사업, 무역항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가격경쟁력 확보를 계획하고 있음
 - 러시아 농업 발달로 야채 및 과일 수입량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임
 - 향후에는 러시아산 제품들과는 차별된 제품을 통해 러시아 농산물 시장을 공략하여야 함. 특히 중국산이 없는 농산물을 위주로 특정 시장을 노려야 할 것임

4. (수출현안) 초콜릿 생산 원료 수입 확대

- 출처: 러시아 관세청, Advis 뉴스 (<http://www.advis.ru>) (2018.10.30.)
- 2015년 ~ 2016년 카카오 원두 생산량 감소로 인해 상승되었던 초콜릿 원료 가격이 제자리를 찾고 러시아 카카오 원료 공급량이 증가함
 - 2015년에서 2016년간 서아프리카산 카카오 생산량이 줄어들어 따라 코코아 원료의 가격이 최고치에 달했었음
 - 또한 2014년에 루블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2015년에는 러시아로의 코코아 원료 공급이 1/4로 감소했었음
 - 2018년 코코아 원료 공급량 증가는 초콜릿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가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의 코코아 원두 및 코코아 원두 가공제품의 세계 시장 가격이 비교적 높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함
 - 2018년 코코아 원두는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톤 당 1600 ~ 1800 파운드에 거래되었으며, 이는 최저가격에 가까운 수준임. 이는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 루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수입가격 상승을 억제해줌
 - 코코아 원두 가격 하락은 러시아 시장 내 코코아 원료 가격 하락을 유도함
 - 2018년 1월-8월간 전 유형의 코코아 원료 공급량이 전년 동기 대비 11% 증가하여 119,300톤 (3억 8800만 달러)에 이름
 - 이중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것은 초콜릿 생산용 원료인 코코아 페이스트와 코

- 코아 버터로 각각 14% (28.6만 t), 12.8% (22.9만 t) 증가함
- 카카오 원두 수입량은 3만 3천 톤(1월 ~ 8월)으로 전년 대비 10% 증가함
- 코코아 파우더 수입량은 10.7% 증가하여 3만 4천 t에 달함
- 코코아 원료 공급량 증가의 또 다른 요인은 러시아 초콜릿 제품 수출 증가임.
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초콜릿 제품의 약 1/4가 외국으로 수출됨
-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과자 제품의 소매가격이 20~40% 정도 상승하여 생산량에 영향을 끼쳤으나 2017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가격이 다시 하락함
- 러시아 코코아 원료 공급량과 수요량 증가로 2015년 이후 침체되었던 러시아 과자 시장이 회복됨
 - 러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초콜릿 및 캔디류의 생산량은 전년도 같은 시기와 비교하여 약 2배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 - 카카오 원두 가격 상승으로 인해 침체되었던 러시아 과자 시장이 완전히 회복되게 됨
 - 2018년 상반기 초콜릿 제품 소비가 증가하여 인당 5.1kg에 달함
 - 소비량 증가에 따라 생산량도 증가하여, 2018년 상반기 초콜릿 제품 생산량은 전년대비 약 10% 증가함
 - 일반 산업 생산 외에도 HORECA(호텔 Hotel, 레스토랑 Restaurant, 케이터링 Catering)부문에서의 초콜릿 제품 판매가 증가함
 - 초콜릿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량이 증가하면서 가정 내에서 전문 식재료를 이용한 제품을 만들기도 함
 - 크리스마스 및 새해 (1월 1일~11일)를 최고의 명절로 여기는 러시아인의 특징으로 인해 연말은 초콜릿 제품 성수기임. 그때까지 초콜릿 제품 수요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임
 - 또한 제과 제품, 제빵 제품, 초콜릿 제품을 가정 내에서 직접 조리하는 것을 즐기는 러시아인의 특징 상 한국 제품 중 초콜릿 홈메이드 세트 등이 러시아 초콜릿 DIY 시장도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

II**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/ 주의사항**

○ 없음

III**통관문제 사례·관련(대응방안, 사유분석, 경쟁국산 등)**

발생일자	통관번호	HS code	상품명(제조사)	중량(kg)	불합격사유	조치사항
2017.1.1						

○ 없음

※ 첨부파일 참조